"공부 못하면 방학도 없나요?"

광주·전남 558개 초등 '학력부진 학생' 보충수업

10월 전국 평가 대비…학생들 불만

광주 A초등학교 6학년 김모군은 올 여름방학이 즐겁지가 않다. 김군은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수업으로 2주일간 매일 4시간씩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학생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게 이유다.

김군은 "방학인데 또 학교에 가야 한다. 일부 친구들은 공부 못해서 방학때도 학교에 나가냐고 놀리기도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력 지상주의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마저 빼앗고 있다. 방학을 활용한 보충수업이 실시되면서 감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생마저 주입·암기식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학력 미달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올 10월로 예정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학력부진 학생만을 분류해 보충수업에 참가시키면서 해당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안기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관내 145개 초등학교 중 125개교가 특별반을 운영한다. 각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14일에서 한달 가까이 읽기, 쓰기, 셈하기 수업을 한다. 하루 평균 수업시간은 4시간 정도다.

시 교육청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공부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학생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 보충 수업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앉아서 무조건 수업만 듣는 천편일률식의 주입식 교육으로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은 전체 437개 초등학교 중 433개교가 여름 보충수업반을 운영하는 데, 1일 4시간씩 15일동안 국어, 수학(각 30시간씩) 등을 수업한다. 대상은 기초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 또는 방학 중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추려내 방학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무료 학습을 해준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학습지 풀이 위주로만 수업을 하고, 수준별 학습이 아닌 모든 아이를 한 교실에 몰아넣고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귀신이 시켰다" 황당 살인

함평 피해망상증 40대, 이웃 노인 살해

함평경찰은 23일 집에 혼자 있던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박모(40)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이모(70)씨의 집에서 혼자 있던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3~4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귀신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시켰다"며 "이씨가 나를 한 때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생각에 이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박씨는 지난 1월 초 영광의 한 병원에서 피해망상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직후 이씨의 집을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정신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박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수거하고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광주시 출연기관 연구원 체포

검찰, '비서관 수뢰' 수사 확대

5천만원 전달 혐의

광주시의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과 관련, 억대의 '뒷돈'을 챙긴 시장 비서관과 IT업체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광주시 출연기관의 직원이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3일 시장 비서관 염모(39)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광주시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연구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염씨가 "A씨와 모 대학교수 C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염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C씨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돈의 흐름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뇌물 전달과정에서 '돈 세탁'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와 C씨는 수년 전 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사업을 입안할 당시부터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업과정 전반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강호순 항소심서도 사형

장모와 처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사장 모닥불에 화상 일용근로자

광주고법 '업무상 재해' 인정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고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4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3일 공사현장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조모(여·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과 이에 따르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2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일 뒤 숨졌다.

이에 조씨 등 유족은 김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일 석축공사가 없었고, 잠시 현장에 들렀다가 스스로 불을 지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고나 작업중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고 유족 측은 총 4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영장서 절도 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3일 수영장에서 훔친 열쇠를 이용해 금품을 훔친 여대생 서모(19)양 등 2명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훔친 열쇠를 이용해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현금 38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훔치는 등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향교 한자교실 "재미 있어요" 23일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열린 '초등학생 한자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훈장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모텔서 수천만원대 도박

진도경찰, 지역신문 기자 등 6명 체포

진도경찰은 23일 모텔 객실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모 지역신문 기자 김모(38)씨 등 6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새벽 0시20분께 진도군 진도읍 한 모텔 객실에서 3천30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 등 신문기자 2명을 비롯, 건축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선후배 사이로, 전날 밤 10시부터 2시간 가량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표와 현금 등 판돈을 회수하고 도박 가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 등 일부는 "구경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허본좌' 허경영 만기 출소

쌍나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과 기행을 일삼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허경영(59)씨가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3일 오전 출소.

○…허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허씨의 기행이 이어지자 인터넷에선 누리꾼들이 허씨를 희화화하며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본좌(本座)'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연합뉴스